

한국 SF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자유의지와 젠더 수행성*

윤애경**

-차 례-

1. 들어가며
2. 과학기술 시대 인간의 존재 방식과 자유의지
3. 여성-포스트휴먼의 이중적 곤경과 젠더 전복적 수행
4. 나오며

* 이 논문은 2021-2022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kyun99@hanmail.net

[국문초록]

이 글은 인간의 고유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감정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의 서사가 어떻게 탈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으로 수렴되고 있는가를 윤이형(「굿바이」), 장강명(「당신은 뜨거운 별에」), 김초엽(「나의 우주영웅에 관하여」)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SF서사들은 미래사회의 확장된 인간에의 이해와 관계 설정의 문제를 사고실험하는 여러 개연적 갈등 상황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과 자본의 논리가 긴밀한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반윤리적 목적성이 포스트휴먼의 실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정황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 속의 인물들은 ‘포스트휴먼화된 인간’ 존재로서, 전통적인 인간 범주로부터의 전이를 겪은 그들이 직면한 실존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미래 인간에 대한 현 인류의 지배적 인식 혹은 시선의 폭력성에 주목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은 실존의 위기를 겪는 갈등 상황에서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독립적 자율적 개체로서의 존엄성을 고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때 포스트휴먼들이 행사하는 자유의지는 배제와 차별의 폭력성을 내재한 인간중심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적 가치를 복원하는 탈인간중심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포스트휴먼이 지향하는 인간적 가치로서 자유의지는 비인간으로서의 여성-포스트휴먼이 직면한 뿌리 깊은 젠더적 곤경과 관련하여 젠더 전복적 수행으로 의미화된다. 포스트휴먼화된 여성 과학자들의 젠더 전복적 과정은 단독 개체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성들과 새로운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지며, 이들의 연대의 바탕에는 반휴머니즘적 상황에 맞서 공존을 도모하는 돌봄의 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미래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

한 개연적 상황들 가운데 특히 경계에 선 상징적 존재의 실존과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SF서사의 한 경향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폭력적으로 치닫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주제어: 한국 SF소설, 포스트휴먼, 여성-포스트휴먼, 자유의지, 젠더 수행성, 연대, 돌봄 윤리, 공존, 인간적 가치

1. 들어가며

최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로부터 도래할 인간 삶의 변동에 대한 상상력은 SF소설 공간에서 다양한 사고실험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래의 인간 ‘포스트휴먼’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놓여 있다. SF소설은 기본적으로 개연적인 미래사회를 다루고 있으며, 그 미래사회에는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전통적 범주의 인간 종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혼합, 유전자 복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휴먼들이 공존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만큼 포스트휴먼 존재에 대한 인식 내용과 태도는 SF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간과 공존하는 비인간으로서, 이들의 출현 배경과 긴밀한 관련 하에 제기되는 윤리적·실존적 문제에 대한 탐색으로 서사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서 우주개발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로 상정된 포스트휴먼 존재의 경우, 이 문제는 논의의 전면에 위치하여 주요 갈등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인간 이해에 관한 논의들과 1957년 구소련의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우주개발자로서 포스트휴먼들의 활약과 그들이 겪는 갈등 상황에 대한 서사적 상상력은 상당한 꺾임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주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이래 2008년 한국인 최초 우주인을 배출하였는바, 2010년 이후 발표된 한국 SF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 과학자-포스트휴먼’이라는 서사적 설정은 결코 공상적이지 않은, 구체적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

1) 2008년 4월 8일 한국인 첫 우주비행사 이소연은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TMA-12에 탑승하여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하였고 여러 우주과학실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2008년 4월 19일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2010년대 이후 등장하는 SF소설 속 포스트휴먼화된 여성과학자 중심의 서사현상들에는 한국인 최초 여성 우주인 탄생 사건이 SF적 상상력을 촉발하는 주요 동인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포스트휴먼에 관한 정의와 담론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확장된 인간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간/비인간, 생명/기계, 자연/인공 등과 같은 이원적 사고체계의 해체 과정을 통해 근대적 인간관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간존재에 대한 관점을 도출해내었고, 그 결과 포스트휴먼 담론은 탈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로 수렴되고 있다.²⁾ 대표적인 포스트휴먼 연구자 캐서린 헤일스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혼합물,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³⁾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먼이 지닌 인간과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며, 또 현 인류와 공존하는 존재로서 그는 인간과 어떠한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가?

‘포스트휴먼’이라는 SF적 실체가 본질적으로 근대적 인간관으로부터 탈피를 지향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을 정의하는 고유한 속성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헤일스는 인간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⁴⁾ 유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생명체로서 포스트휴먼은 기술에 의한 인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간관이 해체되고 소멸되는 과정이자 인간과 비인간이 공유하는 새로운 인간성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⁵⁾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SF문학에 대한 논의들 역시 대체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치를 공유하며 현재와 미래세계를 사유

2) 포스트휴먼 담론은 대체로 기존의 인간관이나 ‘인간’ 개념, 혹은 그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세계관에 대해 도전하는 표현으로 ‘포스트휴먼’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은 근대 휴머니즘에 내재된 인간 사이나 인간/비인간-존재의 위계와 이에 입각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학에 대한 극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신상규, 「포스트휴먼 담론과 SF의 포스트휴먼 서사」, 『교양교육과 시민』 제4권,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2021. 7, 36-39면 참조.

3)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25면.

4) 위의 책, 26면.

5) 인문브릿지연구소,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갈라파고스, 2020, 203면.

하는 인문학적 성찰을 심화시켜 왔다.⁶⁾ 헤일스를 위시한 여러 포스트휴먼 이론가들의 다양한 담론과 한국 SF소설에 대한 기존의 축적된 논의들은 미래의 신인류로서 포스트휴먼 존재의 이해에 주요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래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상정되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은 그 탄생에서 비롯된 복잡한 존재 양상들과 그로 인해 직면하게 될 갈등 상황들을 그들의 실존적 위치와 관련하여 충분히 조명해주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포스트휴먼 주체에게 닥친 위기를 다루고 있는 많은 SF소설의 경우, 대체로 미래 인간에 대한 현 인류의 지배적 인식 혹은 시선의 폭력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윤리적·실존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인간의 과학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포스트휴먼이 아닌 ‘포스트휴먼화⁷⁾된 인간’ 존재의 경우, 전통적인 인간 범주로

-
- 6)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닳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3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8.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신상규, 앞의 글
 양윤의, 「PB+SF+FS—Post-human Body+ Science Fiction+Feminism Story」, 『문학과 사회』 제32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19. 11.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9.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휴먼 담론까지」, 『대중서사연구』 제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9.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9.
 장성규, 「2000년대 한국 SF문학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16집, 건국대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8. 12.
 정은경, 「젠더로 SF하기」,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9.
 추혜진, 「SF서사에서 나타나는 포스트휴먼과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12.
- 7)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비인간, 생명/기계, 마음/물질, 자연/인공의 이원적 구분이 와해되거나 재존재화(reontologize)되는 과정을 ‘포스트휴먼화(posthumanization)’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은 ‘포스트휴먼화’의 과정을 통해

부터의 이탈이라는 존재의 전이를 겪은 그의 실존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처럼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출현 배경만큼 그 실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단순하지 않으며 그들이 직면한 갈등과 극복을 위한 실천적 행위에 주목하는 작업은 탈인간중심적 SF 상상력의 한 지점을 살피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휴먼 서사에 대한 기존 논의 과정들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자유의지와 감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의 서사가 어떻게 탈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으로 수렴되고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소략한 지점으로 남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SF가 본질적으로 전복적 상상력을 지닌 장르라는 점에서 자유의지를 지키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의 실천행위에는 불평등한 젠더 현실이 주요 원인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SF서사에서 문제제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은 대체로 여성 젠더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이 함축하는 바에 대한 이해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SF서사의 뚜렷한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즉 인간의 본질로 상정되는 자유의지가 비인간으로서의 여성-포스트휴먼의 갈등 상황에서 거둬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좀 더 내밀한 이해를 요구한다.⁸⁾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0년 이후 발표된 세 편의 작품들, 「굿바이」(2013), 「당신은 뜨거운 별에」(2017), 「나의 우주영웅에 관하여」(2019)를 대상으로 이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해당 작품들은 우주 개척자로서 포스트휴먼화된 여성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실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모든 존재자(인간, 인공물, 혼종체)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신상규, 앞의 글, 36-37면 참조.

- 8) 임석원은 다양하게 전개된 포스트휴먼 담론들 가운데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이 기존 휴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 좀 더 충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이 입장이 무엇보다 서구 철학의 전통과의 전면적인 단절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휴머니즘을 비판해 온 기존 사유 방식”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지닌 이같은 성격은 특히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SF소설 양상에 대해 매우 시사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임석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 극복」,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4, 71면.

존에 일어난 갈등 상황의 해결 방안으로 자유의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덧붙여 이 작품들은 이미 많은 논자들에게 의해 포스트휴먼 서사로서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포스트휴먼의 ‘자유의지’ 혹은 ‘선택의 문제’가 내포한 의미에 관해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음이 또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SF서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자질을 강조하는 SF서사가 어떻게 인간중심적 사고를 넘어서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수렴되고, 페미니즘적 전망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고자 한다.

2. 과학기술 시대 인간의 존재 방식과 자유의지

SF서사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부터 출현한 포스트휴먼이 현 인류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기반으로 한다. 즉, 미래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SF서사의 기본 조건은 첨단 과학기술과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는 포스트휴먼들, 그리고 확장된 범위의 인간 존재와 현 인류가 맺는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포스트휴먼 존재에 대한 관점은 주요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인간에 대해 현 인류가 어떠한 입장을 드러내며 공존의 관계를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인간중심적 사고를 넘어서고자 하는 SF서사의 기본 전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새로운 인간 존재에 대해 무엇보다 간명한 사실은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일궈낸 성과물이라는 바로 그 태생적 위치는 전통적 인간 종의 신체적·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피지배의 위치에 놓이는 취약성을 동시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때로 포스트휴먼을 대상으로 현 인류의 편협한 인간중심적 사고가 폭력적으로 행사됨으로써 그들 존재를 위협하는

갈등 지점에서 더욱 선명하게 제시되기도 한다. 그들의 실존 상황은 그들 존재의 태생적 위치에서 비롯된 윤리적·실존적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출현할 인간의 다양한 존재 방식들에 대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 SF 서사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관계 설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포스트휴먼이 과학기술의 객관적 결과물로서의 인공 존재가 아니라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의 경우라면, 그들 존재가 겪는 윤리적·실존적 문제는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다. 김초엽의 「나의 우주영웅에 관하여」에서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인간 이해와 관련한 우려와 성찰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이보그 그라인딩은 인간이 터널을 지나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신체를 개조하는 과정이었다. 인간을 터널 너머로 보내기 위해 인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이 프로젝트가 강력한 비난에 직면한 이유이기도 했다. 우주 저편을 보기 위해서 인간이 본래의 신체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성취일까?⁹⁾

이 작품에서 ‘재경’과 ‘가운’은 각각 인류를 대표하는 터널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었고, ‘사이보그 그라인딩’이라는 신체 개조 프로젝트를 거쳐 사이보그로 재탄생한 포스트휴먼들이다. 우주 개발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젝트는 ‘인간을 터널 너머미지의 우주로 보내기 위해 인간 자체를 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바로 이 발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비난과 우려에 직면한다.

목적을 위해 인간을 도구화하는 논리가 안고 있는 윤리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일면 전통적 인간의 패러다임이 해체되는 데 대한 우려의 반영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이 확장된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도구화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예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전통적 인간과 포스트휴

9) 김초엽,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281면.

먼 존재에 대해 동시에 갖는 이같은 우려와 회의는 포스트휴먼과 현 인류의 공존 관계의 모색이라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당면과제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F서사 속 포스트휴먼의 실존을 둘러싼 갈등은 인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인간의 비인간화 작업이 정당화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인간중심적 사고의 폭력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과학기술이 자본과 결합될 때,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이형의 「굿바이」에서 과학자인 ‘그녀’는 육체를 냉동보관해 두고, 금속 몸의 스파이디로 전환한 포스트휴먼이다. 미래 인간의 평등한 공동체 실험과 화성 개조 작업을 위해 인간의 정신만을 전자뇌에 이식하여 기이한 기계 몸으로 갈아탄 ‘그녀’와 공동체 일원들은 7년째 되던 해 지구로부터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귀환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스파이디 공동체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평등한 인간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으로서의 개별적 자질들을 포기한 그들에게 인간 몸의 감각에 대한 향수를 일깨운 모종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로써 미래 인간사회의 성공적 모델로서 자부했던 공동체 실험은 일방적으로 종료되고 그들은 다시 인간 몸으로의 전환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포스트휴먼으로서의 공동체 실험이 자율적이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지구의 관제센터로부터 철저히 관리되어 왔음을 뜻한다. 그들은 우주 행성에서 시도된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 타진에 도구적으로 활용된 것이며, 그것이 실패로 판명되자 육체의 복원 기술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환을 선택했지만 결국 다시 인간 몸으로의 귀환을 위해 자본의 굴레에 오히려 매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들을 포스트휴먼으로 개조하여 화성으로 보낸 지구의 관리 조직이 그들 존재에 가하는 폭력적 통제 방식은 철저히 지배/피지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적 관계 설정은 그들의 실존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 몸으로의 귀환을 강요받는 일방적 통보에 대해 ‘그녀’는 지구에

냉동보관되고 있는 자신의 육체를 소각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현 인류로의 귀환 경로를 영원히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한다. 그녀의 선택은 비인간을 대하는 인간들의 폭력적 행태에 맞선 항변이며 개별적 생명체로서 내재적 존엄성¹⁰⁾을 고수하고자 한 자유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몸은 개성과 육체의 감각을 포기하고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환을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은 그대로 기계 몸에 이식되어 독립적·자율적 개체로서의 개별적 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그들 인간-포스트휴먼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으로 상정되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SF서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 인류가 과학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지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띤다. 포스트휴먼 시대 신인류의 공존을 모색하는 서사적 통찰은 다양한 형태의 확장된 인간들 가운데 무엇보다 인간/비인간의 경계에서 있는 상징적 존재로서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의 실존에 가해지는 폭력적 상황을 통해 첨예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그들을 두고 인간/비인간으로 구분하는 단순한 잣대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포스트휴먼이라는 존재 자체가 과학기술의 성과로 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자체의 성격은 미래 인간의 실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때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내면화하면서 그것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본의 논리와 긴밀한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SF서사들은 미래사회의 확장된 인간에의 이해와 관계 설정의 문제를 사고실험하는 여러 개연적 갈등 상황 가운데

10) 도날 오마수나에 따르면, 내재적 존엄성은 종종 인간이라는 것being human과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종족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존재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간에 기초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휴먼도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도날 오마수나, 홍예리·신상규 역, 『인간 존엄성과 인간 향상의 윤리』,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4, 112면.

데 특히 이 지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반윤리적 목적성이 포스트휴먼의 실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정황을 장강명의 「당신은 뜨거운 별에」에서 보다 선명하게 목도할 수 있다.

과학자들에게 우주 탐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탄산음료 회사는 인간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의 몸에서 “머리만 우주선에 싣고, 목 아래 몸뚱이는 지구의 시설에 냉동보관”¹¹⁾하는 아이디어를 ‘유진’에게 제안한다. 금성 탐사 프로젝트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행성의 연구자인 유진으로서는 연구 대상을 직접 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회사 측의 목적은 과학자의 연구 환경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사선 내 우주비행사의 희로애락을 휴먼 다크로 제작, 송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대의 수익성 창출에 있다. 제안 받는 측과 제안하는 측의 상반된 입장 차이에서 드러나고 있듯, 기계 몸으로의 전환 과정에 중요하게 개입하는 요소는 개조 목적과 경제성의 논리이다. 자본의 막대한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투입하는 초기 자본조차 냉혹한 경제적 논리에 기반하여 인간의 몸을 철저히 물질적으로 취급하는 반윤리적 태도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과 포스트휴먼 모두에게 최악의 재앙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사회의 인간적 가치¹²⁾에 대한 통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인간의 신체 중 감정 및 인지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뇌만 로봇에 담겨 우주 탐사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과학자 ‘유진’은 문득 자신의 감정이 지구의 회사 측에 의해 은밀하게 조종·통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심각한 공포에 빠지게 된다.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free will)¹³⁾가 곤경에 처한 것이다. 바로 이 자유의지의

11) 장강명, 「당신은 뜨거운 별에」,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 2017, 39면.

12) 인간적 가치는 배타적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와 구별된다. 비판적 휴머니즘의 입장이 전통적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기존 철학적 사유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것은 배타적·차별적 휴머니즘에 저항하는 탈휴머니즘적 가치이며, 확장된 인간 존재들이 독립적 개체로서 평등한 공존관계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 가치이다.

13) 현실 생활에서 자유는 통상적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침해들, 말하자면 인위적·신체적 제약이나 정치적·사회적 제재에 모야진다. 그러나 종종 명백히 드러

문제란, 인간의 도덕적 관점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인간으로서의 전제된 지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문제의 지위가 지닌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¹⁴⁾ 이 점에서 자유의지에의 믿음이 파괴된 상황은 그녀의 실존과 직결된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왜 드라마 촬영 기간이 되면 그토록 나약하고 감상적인 기분에 빠졌는지 알 것 같았다.

왜 탐사활동 계약을 연장하기 전 며칠 간은 그토록 강해지고 냉정해져서 장기 목표만을 고려했는지도 알 것 같았다.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힘든 논문을 마쳤을 때 느꼈던 충일감, 충족감은…… 그것들은 어디까지가 그녀 자신의 것이었을까?

…중략…

그러나 아무리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유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자아정체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었다.¹⁵⁾

철저히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 있는 관계 구도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실존을 위협하는 섬뜩한 지배 권력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한다. 그것은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의 고유한 정신 영역까지 물화시켜 함부로 유린하는 비인간적 폭력성에 대해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비장한 자유의지의 행사이며, 독립적 개체로서의 “생존과 자존”¹⁶⁾을 천명하는 필사적인 대응 방식에 해당된다. 즉, 그녀는 인간으로서 전제된 자신의 지위를 침해당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로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자기 실존을 지켜내고자 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

나지 않는 계약을 통해 심각한 공포, 중독, 노이로제, “세뇌” 등을 겪는 경우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때 보다 미묘한 종류의 자유가 곤경에 처한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를 “자유 의지”(free will)라고 부른다.

게리 왓슨, 최용철 역, 『자유의지와 결정론』, 서광사, 1990, 11면.

14) 위의 책, 13면 참조.

15) 장강명, 앞의 책, 59-62면.

16) 위의 책, 74면.

의 반윤리성에 맞선 미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인간이 포스트휴먼화된 경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선 이 존재의 양면성은 곧 그의 실존에 가해지는 폭력성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것은 인간-포스트휴먼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은 인간적 감정을 지닌 주체적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받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비인간 혹은 기계로 대상화됨으로써 철저히 조종되고 통제당하는 폭력성에 노출되고 있다. 지극히 감정적인 휴먼 드라마의 연출을 위해 인간의 다채로운 감정 변화는 필수적이며, 바로 그 점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온전한 기계가 아닌 감정의 주체이자 원천으로서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인간-포스트휴먼은 자신의 감정조차 철저히 유린당하는 비인간적 지배체제에 폭력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인간적 자질에 해당하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개별적 반응 체계로서의 감정과 감각이 미래의 포스트휴먼 서사에서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포스트휴먼 존재의 실존과 관련하여 주요 단서로 제기되는 그것은 독립적 개체로서 그들의 존엄성을 환기시키는 주요 지점이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포스트휴먼 존재들의 관계 설정이 일방적 지배구조나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기계적 평등구조가 아닌 탈인간중심적이면서도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의미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존의 위기를 겪는 절체절명의 갈등 상황에서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은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독립적 자율적 개체로서의 존엄성을 고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감행되는 선택적 행위뿐만 아니라 위협받는 자기 실존에 대해 반응하는 섬세하고 격렬한 감정들은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의 복잡미묘한 실존을 드러내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개연적 상황들 가운데 특히 경계에 선 상징적 존재의 실존과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SF서사의 한 경향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이기적인 과학기술력을 배경으로 폭력적으로 치닫는 인간중심적 사고의 진정한 극복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3. 여성-포스트휴먼의 이중적 곤경과 젠더 전복적 수행

본격적인 우주 시대로의 진입을 배경으로 포스트휴먼화된 인간 존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은 그들의 태생적 취약성을 악용한 차별적 기체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으로 포스트휴먼화를 감행한 여성 과학자들의 경우 그녀들의 실존 상황은 한층 더 뿌리 깊은 곤경에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몸으로부터 인간과 기계의 혼종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녀들에게 주어진 실존의 조건은 여전히 첨예하게 각인된 젠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적 인간중심 사상에서 여성은 인간의 범주로부터 밀려나 있으며, 포스트휴먼 역시 동일 기준에서 비인간으로 타자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화된 여성 과학자들의 존재는 여성 젠더로서 그리고 포스트휴먼으로서의 곤경에 중첩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계몽적 인간관의 차별과 배제의 정치학¹⁷⁾이 어떻게 덧씌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여성 과학자들에게 과학기술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그녀들은 포스트휴먼으로 전환된 후에도 철저히 소모적 이미지로 소비되는 갈등 상황에 직면한다. ‘재경’(「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역시 여성 과학자로서 최초의 신체 개조 우주비행사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객관적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그들이 세운 기준의 잣대에서 부당한 폭력적 시선에 시달린다. 젠더적 시선에 포획된 그녀는 그녀에 관한 모든 정보, 즉 나이, 건강, 성별, 인종, 체형 등의 식별 자료가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있듯 인류를 대표할 우주비행사로서의 완벽함 혹은 표준과는 거리가 먼 자격미달자일 뿐이다. ‘재경’을 드러내는 정보들은 우주비행사로서의 자질과 연결되어 부정

17) 신상규, 앞의 글, 38면.

적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객관적 진실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아래의 두 인용문은 ‘재경’에 관한 상반된 정보를 담고 있다. 젠더적 편견이 실제의 진실을 얼마나 왜곡·변형시켜 놓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① 마흔여덟 살은 일반적인 우주비행사로도 첫 비행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고, 그 나이를 감안할 만큼 최재경에게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심지어 그녀가 만성 전정기관 이상이라는 부적절한 건강 상태를 지녔으며, 근육도 뼈 밀도도 표준 신체에 미달하는 마르고 작은 체형인데다, 이미 한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겪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하나둘 공개되자, 선발 과정에 대한 논란은 불길처럼 커졌다.¹⁸⁾

② 재경은 훌륭한 경력을 가진 수석 연구원이었고 항공우주국과도 많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재경은 전정기관 이상 외에는 큰 건강 문제도 없었고 국제 미션 수행에 필요한 언어들도 유창하게 구사했다. 심지어 그 엄격하다는 스태크마인드의 검증 절차를 통과했으니 사실상 우주비행사가 될 자격은 이미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았다.¹⁹⁾

또한 이 여성 우주비행사에게 쏟아지는 광기어린 세간의 반응 역시 기본적으로 동양인 비혼모 여성이라는 복잡한 정체성의 표식을 지닌 여성 젠더에 대한 폭력적 시선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뿌리 깊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굴레 한가운데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소모되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항공우주국의 홍보 영상에서는 왜소한 체격의 젊지 않은 동양인 여성이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고통스러운 개조와 훈련을 버텨내는 과정이 극적으로 연출되어 위대한 인류 대표로서 극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소비되었고, 그 외 수많은 단체들의 요청과 관련해서 그들의 과소대표로서 혹은 과대대표로서 인류 최초 여성 우주비행사 ‘재경’이 지닌 젠더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소환되고 소모된다. 여성 과학자가 처해 있는 이같은 소모적

18) 김초엽, 앞의 책, 279면.

19) 김초엽, 위의 책, 295-296면.

이미지로의 소환은 하딩이 강조한 대로, 과학이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음²⁰⁾을 생생하게 지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그녀의 결합으로 치부되는 표식들은 포스트휴먼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위적 노력으로 채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가 요구받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위치에서의 젠더 이미지에 대한 충실한 수행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젠더적 곤궁을 더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녀가 도달한 사이보그 포스트휴먼으로의 재탄생은 인류가 고착시켜온 온갖 이데올로기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사이보그로서의 새로운 몸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함께 그녀를 움아매고 있는 모든 억압적 이데올로기들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뜻하며 무엇보다 여성 해방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사이보그로 전환된 그녀는 인간의 모든 편향적 이데올로기의 시선으로부터 탈주를 선택한다. 예정된 우주의 터널이 아닌 심해를 선택하는 사이보그의 탈주는 결합 있는 수동적 객체라는 젠더적 위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결국 ‘재경’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이보그 그라인딩 프로젝트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능동적 주체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젠더 전복적 수행²²⁾을 통해 ‘재경’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체계가 지닌 어떠한 폭력적 시선에도 포획되지 않을 자기 실존의 방식을 탐색하고 있다.

과학자 ‘재경’이 사이보그 우주비행사로서 여성 젠더라는 표식을 달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지닌 단체들로부터 소환되고 소모적으로 이용되었다면, 금성 탐사 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리얼리티 쇼의 주

20) 샌드라 하딩, 조주현 역,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10, 46면.

21)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사이보그 선언문: 20세기말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적-페미니즘」,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2002, 322-325면 참조.

22)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는 실체가 아니라 행위이며 수행이다. 따라서 젠더 정체성은 젠더의 수행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부장제 문화 중심의 기원을 위반하고 전복함으로써 남성중심 사고를 전복하는 젠더를 수행하는 것을 젠더 전복적 수행이라 부를 수 있다.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 정체성』, 아카넷, 2012, 171면.

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 과학자 ‘유진’(「당신은 뜨거운 별에」)은 풍부한 감정과 모성을 강요받는 여성 젠더로서의 곤궁에 처해 있다.

“과학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보다 진지한 우주탐사 다큐멘터리 쇼”²³⁾를 제작하는 회사 측에서 여성 과학자를 영입하는 것은 당사자의 과학자로서의 열정이나 자질 혹은 업적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쇼의 주인공으로서 여성 과학자의 역할은 이미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 지극히 통속적인 드라마를 전제로 한 다큐멘터리 쇼에서 그녀는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며 인간적인 감정선을 다채롭게 표현할 여성 주체로서 소환된다. 이 점에서 회사 측이 내건 쇼의 정체성은 과학자들의 진지한 우주탐사가 아니라 여성 과학자를 내세운 조작된 휴먼 드라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획 안에서 여성 과학자 ‘유진’은 과학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은 철저히 소모적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극을 해봤으면 연기가 뭔지는 알겠네. 엘리트 과학자 어머니와 보헤미안 스타일 레즈비언 딸이라. 그걸로 가자고. 딸을 만나서 출연을 섭외해봐. 어떤 타입인지 파악하고, 유진 연구원의 캐릭터도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조정해. 알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함께 있으면 도저히 성격이 안 맞는 쌍. 그러다 시즌 파이널에서 각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²⁴⁾

제작자들에 의해 이미 짜맞춰진 각본은 여성 과학자의 사적 영역인 가족 서사를 소환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과학자 모녀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충돌해가면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는 대중적인 휴먼 드라마의 정형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구도에서 ‘유진’은 과학자로서의 이성적 측면과 어머니로서의 감성적 측면이 충돌하는 갈등 지점에서 모성애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어머니로서의 재현을 요구받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휴먼 드라마는 금성을 탐사 중인 여성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23) 장강명, 앞의 책, 33면.

24) 장강명, 위의 책, 11면.

직업 구성원 및 사회 인식 변화의 일단을 적극 반영하고 있지만 가족 내 구도 안으로 소환된 그녀의 위치는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의해 사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설정을 통해 리얼리티 탐사 쇼는 여성 과학자의 전문성보다는 여성성을 부각시키고 정형화된 성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여성 젠더를 소비하고 있다.²⁵⁾ 특히 여성 주인공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내는 ‘감정’들은 인간 속성의 주요 부분으로 설명되는 동시에 여성적 속성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휴먼 드라마에서 여성 젠더의 소환은 정형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더하여 드라마 속에서 연기되는 ‘유진’의 감정은 더욱 극적인 효과를 위해 ‘유진’ 자신의 것을 넘어 타인으로부터 은밀하게 조종되고 있으며, 여성 젠더의 감정을 통제하는 반윤리적 방식은 여성 인물이 어떠한 실존적 곤궁에 처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섬뜩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심각한 실존의 위기에 직면한 ‘유진’은 본인의 감정마저 외부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조종되고 통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딸 ‘마리’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한다. 그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딸과 공모하여 탈출 기회를 엿보는 상황은 ‘과학탐사 프로젝트를 가장한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를 가장한 탈옥 모의’²⁶⁾이며, 애초에 속임수로 조작된 리얼리티 쇼에 대한 패러디적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전개되는 젠더의 패러디적 반복은 단단한 심층과 내적 본질이라는 젠더 정체성의 환영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²⁷⁾ 시청자와 유진 모녀 모두를 속이고 있는 제작진의 기만극은 그것을 패러디한 유진 모녀의 기만극에 의해 그 실체가 폭로되고 조롱되며, ‘유진’은 그것의 실행을 통해 자신에게 강요된 젠더

25) 나미수, 『미디어와 젠더』, 전북대출판문화원, 2019, 80면.

26) 장강명, 위의 책, 57면.

27) 젠더의 패러디적 반복을 통해 젠더 정체성의 환영이 폭로됨은 젠더 규범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본질적인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연시된 젠더 서사를 제거함으로써, 확산된 젠더 배치의 효과를 발휘한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4, 358면.

이미지를 전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 젠더로서의 곤궁으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구해낸다. 결국 이들 모녀가 택한 생존 전략은 궁극적으로 기만극 패러디의 반복 자체보다는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규범들을 어떻게 반복을 통해 흔들고 무너뜨릴 것인가에 착안한 방편이며, 이 점에서 그들의 패러디 방식은 전복적 정치성을 가진다.²⁸⁾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탈출 과정에서 모녀의 골 깊은 감정의 해소 방식은 타자들의 흥밋거리로 소모되는 예정된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이해의 노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들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극화시킨 사기극을 이용하여 탈출 사기극을 모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들이 선택한 패러디의 생산적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이때 포스트휴먼화된 여성 과학자들의 젠더 전복적 과정은 폭력적인 인간중심적 지배구조 내에서 단독 개체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성들과 새로운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등한 신인류 공동체의 가능성을 시도했던 ‘그녀’(「굿바이」)는 불편부당한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폭력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면서도 뱃속의 생명체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신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눈부신 변화를 누릴 수 없는 경제적 약자로 지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당신’ 역시 자기 소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계 몸으로 전환하고, 급기야 육체의 소각을 결정하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들은 각자가 처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을 부정하고 좌절시키는 지배체제의 폭력성에 위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그녀들은 차이 속에서 서로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줌으로써 비인간적 경제 논리와 결탁한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경제적, 젠더적 약자로서 연대의 관계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금성 연구자이자 다큐멘터리 쇼의 주인공인 ‘유진’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소원해 있던 딸 ‘마리’의 관계(「당신은 뜨거운 별에

28)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5-6면 참조.

」) 역시 인간의 정체성이 조작되고 통제되는 반휴머니즘적 고립 상황에서 혈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개체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의 관계로 확장된다.

이러한 연대의 관계가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서는 인류 첫 사이보그 여자 우주비행사로서의 기대와 비난을 벗어던지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심해로 뛰어든 ‘재경’과 그녀의 결단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또 다른 사이보그 여자 우주비행사 ‘가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발견된다. 미지의 우주 탐사 시도에 성공한 ‘가윤’은 ‘재경’이 인종, 민족, 젠더적 편견에 맞서 동양인 여성 과학자로서의 길을 개척한 선구적 영향 안에서 성장했고, ‘재경’은 후배 여성 우주비행사인 ‘가윤’으로부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음으로써 서로 굳건한 연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완벽한 개별적 존재자로서가 아니라 연대적 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실존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 연대의 바탕에는 반휴머니즘적 상황에 맞서 공존을 도모하는 돌봄의 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돌봄 윤리는 위계적 지배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배타적 인간중심주의 사고체계 안에서 권력과 폭력을 다루는 혜안(慧眼)을 갖고 있다.²⁹⁾ 포스트휴먼화된 여성 과학자들의 실존 위기를 다룬 일련의 SF소설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 존재들이 공존하는 미래사회의 구성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어 바로 이러한 인간적 가치들이 더욱 근원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진지하게 제안하고 있다.

4. 나오며

이 글은 인간의 고유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감정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휴먼 주체의 서사가 어떻게 탈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으로 수렴되고 있는가를 윤이형(「굿바이」), 장강명(「당신은 뜨거운 별에」), 김초엽(「나의 우주영웅

29)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박영사, 2017. 45-46면.

에 관하여」)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본성으로 상정되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SF서사들은 기본적으로 현 인류가 과학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지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포스트휴먼화된 인간’ 존재의 경우, 그의 실존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의 경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선 이 존재의 양면성은 곧 그의 실존에 가해지는 폭력성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것은 인간-포스트휴먼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포스트휴먼화된 인간은 인간적 감정을 지닌 주체적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받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비인간 혹은 기계로 대상화됨으로써 철저히 조종되고 통제당하는 폭력성에 노출되고 있다.

실존의 위기를 겪는 갈등 상황에서 포스트휴먼들이 행사하는 자유의지는 배제와 차별의 폭력성을 내재한 인간중심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적 가치를 복원하는 탈인간중심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포스트휴먼이 지향하는 인간적 가치로서 자유의지는 비인간으로서의 여성-포스트휴먼이 직면한 뿌리 깊은 젠더적 곤경과 관련하여 젠더 전복적 수행으로 의미화된다. 포스트휴먼화된 여성 과학자들의 젠더 전복적 과정은 폭력적인 인간중심적 지배구조 내에서 단독 개체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성들과 새로운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지며, 이들 연대의 바탕에는 반휴머니즘적 상황에 맞서 공존을 도모하는 돌봄의 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미래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개연적 상황들 가운데 특히 경계에 선 상징적 존재의 실존과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SF서사의 한 경향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폭력적으로 치닫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ABSTRACT]

The Free Will and Gender Performativity of Posthuman in Korean SF Novels

Yoon, Aekyung(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narrative of the posthuman subject, which values free will and emotion, which are inherent human qualities, is converging into the context of critical posthumanism oriented towards postanthropocentrism, focusing on the works of Yoon Yi-hyung ("Goodbye"), Jang Kang-myung ("You Are a Hot Star"), and Kim Cho-yup ("About My Space Hero").

These SF narratives, which are noted in this paper, draw attention to the point where the logic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apital form a close collusion between the various probable conflict situations that test the problem of establishing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with the expanded human beings of the future society. And it shows that the anti-ethical purposefulness involved in the re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existence of posthumans.

The characters in these works are 'posthumanized humans' who can note the violence of the dominant perception or gaze of the present humanity towards the future human being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on the existential situations they face and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m as they undergo a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human category.

Posthumanized human beings struggle to uphold their dignity

as independent autonomous entities centered on human values in conflict situations of existential crisis. At this time, the free will exercised by posthumans can be seen as not an anthropocentric value that contains the violence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but the realization of postcentrism, which restores human values away from them.

On the other hand, free will as a human value to which posthumans aspire is signified as gender-subversive practice in relation to the deep-rooted gender predicament faced by non-human women-posthumans. The gender-subversive process of posthumanized women scientists is not carried out as a single entity, but is made possible by forming new solidarities with the women around them, and underlying this solidarity is an ethic of care that promotes coexistence against anti-humanistic situations.

Ultimately, among the various probable situations tha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 future societies, a tendency in science fiction narratives that focuses on the existence and human value of symbolic beings on the border, in particular, can be positioned as a direction of serious exploration of how the violent anthropocentric thinking in the posthuman era should be overcome.

Key words : Korean SF Novels, Posthuman, women-posthumans, free will, Gender Performativity, solidarity, ethics of care, coexistence, human values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초엽, 「나의 우주영웅에 관하여」,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윤이형, 「굿바이」, 『러브 레플리카』, 문학동네, 2019.
장강명, 「당신은 뜨거운 별에」,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 2017.

■ 단행본

-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 정체성』, 아카넷, 2012, 13-191면.
나미수, 『미디어와 젠더』, 전북대출판문화원, 2019, 96-122면.
인문브릿지연구소,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갈라파고스, 2020, 195-209면.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32면.
케리 왓슨, 최용철 역, 『자유의지와 결정론』, 서광사, 1990, 11-13면.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박영사, 2017.1-64면.
샌드라 하딩, 조주현 역,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10, 31-52면.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4, 326-363면.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21-59면.

■ 논문 및 평론

-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59면.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2면.
김선희, 「여성의 범주와 젠더정체성의 법적 수행」, 『이화젠더법학』 제4권 2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2. 12, 1-18면.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3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8, 333-356면.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사이보그 선언문: 20세기말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적-페미니즘」,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2002, 265-325면.
도날 오마수나, 홍예리·신상규 역, 「인간 존엄성과 인간 향상의 윤리」, 『인간과 포스트

- 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4, 109-136면.
-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49면.
- 신상규, 「포스트휴먼 담론과 SF의 포스트휴먼 서사」, 『교양교육과 시민』 제4권,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2021. 7, 33-64면.
- 양윤의, 「PB+SF+FS—Post-human Body+Science Fiction+Feminism Story」, 『문학과 사회』 제32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19. 11, 361-380면.
-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9, 105-135면.
- 이지연,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Cyborg Feminism)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7, 2012. 5, 97-117면.
-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휴먼 담론까지」, 『대중서사연구』 제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9, 33-65면.
-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9, 46-58면.
- 임석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 극복」,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4, 61-80면.
- 장성규, 「2000년대 한국 SF문학 연구」, 『스토리엔이미지텔링』 제16집, 건국대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18. 12, 225-247면.
- 정은경, 「젠더로 SF하기」,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9, 22-35면.
- 추혜진, 「SF서사에서 나타나는 포스트휴먼과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12, 95-102면.
- 현남숙, 「사이보그 수사학에 나타난 몸의 형상화」, 『한국여성철학』 18, 한국여성철학회, 2012. 11.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9, 39-63면.